

## 내러티브 프레임의 관점에서 분석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 한국어 번역\*

이혜승  
(수원대)

## 1. 서론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는 상호의존적이어서 모든 행위, 사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알게 모르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의 큰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특정한 행위는 또 다른 행위의 원인 혹은 결과로서 평가된다.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고립된 실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은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번역 역시 그 소통 행위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역관계, 그것을 둘러싼 상황과 맥락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번역을 하는 사람은 고립된 텍스트, 고립된 활동으로서가 아닌, 역

동적 소통의 측면에서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번역이라는 활동을 마주하게 된다. 번역사는 원문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적 의미뿐 아니라 원문이 해당 사회 내에서 독자들에게 의해 소비되면서 가지게 된 역할과 기능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원문이 원문 독자들과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획득하게 된 의미 역시도 충실하게 재현해야 하는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번역사는 번역이라는 행위의 시작을 가능하게 만든 발주처, 생산된 번역을 소비하게 될 독자층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기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발주처가 번역이라는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상 독자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번역 전략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변수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결과로 온전한 작품이 완성되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의 충돌로 말미암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20세기 후반부터 번역을 이데올로기와 연관선상에서 고찰하고 충돌과 갈등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도 번역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 간에 얽혀있는 긴장 관계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갈등 관계가 번역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관철되는지를 내러티브 프레임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야기’, ‘스토리’ 등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는 “세상을 보여주고 구성하는 요소(Baker 2006: 5)”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야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곧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특정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데에 번역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같은 현상, 같은 사건도 그것을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이름 붙이고 순서를 조정하는지, 무엇을 더 부각시키고 은폐하는지에 따라 이야기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의 저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와 한국어 번역서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이다. 해당 번역은 2014년 9월 한경BP에서 출간되었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2015년 디턴의 노벨경제학상 수상과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번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많은 논란 끝에 위의 1차 번역본은 결국 전량 회수 조치되었고, 출판사에서 재번역을 해서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수원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다시 출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원문과 비교했을 때 번역문에는 엄청난 변형이 가해졌는데 그것이 저자의 경제관을 특정 방향으로 부각되게 만들려는 출판사측의 의도였다는 것이 제기된 문제의 핵심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저서와 관련해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장으로서 번역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내러티브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원문이 번역문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사례별로 취합하고, 각각의 변형에 사용된 프레이밍 장치를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번역문에서 내러티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러티브의 변화가 문제제기 당시 지적된 것처럼 출판사의 가치관, 입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해관계의 반영으로서 번역의 변형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까지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번역이라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물과 관련된 논쟁을 전통적인 텍스트 대 텍스트의 비교 분석에서 벗어나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번역에서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집중 조명한 베이커(2005, 2006, 2007)의 이론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프레이밍, 프레이밍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2.1 내러티브

베이커는 내러티브를 “우리가 견지하고 있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공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스토리”(Baker 2005: 5)로 정의한다. 즉, 내러티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또 우리들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말한다. 여기서 내러티브는 논증, 묘사, 서사 등 수사적 수단 중 하나인 협의의 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세상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

내는 이야기, 스토리다. 베이커는 사회학자인 소머즈와 김슨(Somers & Gibson 1994)을 인용해서 내러티브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원칙이며 피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언급하고, “텍스트나 담화의 형식으로 완전하게 혹은 외연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그 전반을 떠받치면서 기저에 놓여있는 것(Baker 2005: 5)”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데에 필요한 요소로서 소머즈와 김슨은 관계성(*relationality*), 인과적 플롯 구성(*causal emplotment*),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시간성(*temporality*)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Somers & Gibson 1994, Baker 2007: 155 재인용). 관계성이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모든 사건이 독자적이지 않으며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려면 모든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Baker 2005: 8). 인과적 플롯 구성이란 특정 사건은 다른 사건과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내러티브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개별 사건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베이커는 우리로 하여금 사건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과적 플롯 구성이라고 설명하고, “내러티브가 되기 위한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Baker 2007: 155).

선택적 전유란 내러티브를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사건의 특정 부분은 좀 더 부각시키는 반면, 다른 부분은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을 구성하는 세세한 일부들을 모조리 담아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Baker 2007: 155). 또, 모든 내러티브는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시간성이란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어떤 순서로 등장하고,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내러티브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모든 사건은 다른 사건과 시, 공간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 구성의 일부로서 해석된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건들 중 일부 혹은 특정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축소하면서 혹은 사건이나 인물의 시간적, 공간적 배열 순서를 바꿈으로써 상이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내러티브는 시공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

을 인과성 있게 구성하고 적절한 순서로 배열해서 필요한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야기로서 내러티브는 국가나 미디어 등 권력 기관에 의해서 이용될 경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 상호 연관관계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배열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러티브를 믿게 하고,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통제하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혁명공약, 그 이후 유신헌법으로 구축된 반복 내러티브이다. 60-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혁명공약 1조를 국가 운영의 토대로 삼았다<sup>1)</sup>. 실제로 적으로 대치했던 6.25 전쟁이라는 공통의 경험에 국가 안보 유지 전략으로 선택된 반공주의가 결합되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러티브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다. 북한은 배척해야 하는 대상이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 반공이 우선한다는 내러티브는 언론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교육 역시 이러한 내러티브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해서, 북한 사람들을 괴물, 요괴로 묘사하는 반공 포스터 대회, 빨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반공 표어, 글짓기대회 등이 교육에서 일상화되었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부각된 반복 내러티브는 그것에 노출된 사람들의 의식에 강하게 자리 잡았고,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절대적으로 적대시하게 만들고, 정권의 부조리를 대북 논리로 포장해 묵인, 방조하게 유도했다. 그나마 정권의 부당함에 항의했던 사람들은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가 씌워져 간첩으로 몰려 처형을 당했다. 공고하게 구축된 반복 내러티브는 무고한 이들의 처벌, 그리고 더 나아가 박정희 정권의 18년 집권 연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도 특정 이익집단과 정치세력의 권력화에 기여하고 있다.

1) 5·16군사정변을 성공시킨 후 내건 혁명공약 제1조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표방하고 있었으며, 이는 ‘반공법’ 제정과 같은 실제 정책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반공법’은 직접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나 북한 체제를 옹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찬양’, ‘고무’, ‘동조’의 조항을 통해 포괄적인 처벌이 가능했으므로 악용될 여지가 많았다(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김순미는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위협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결국 개인이나 단체, 국가 등은 언제나 일련의 사건을 조합하여 자신이 원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내러티브가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행동과 사람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문맥에서 내러티브의 구성에는 항상 개인의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

(김순미 2013: 70)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러티브는 사람들의 생각,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이해집단, 정치세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 2.2 내러티브 프레임과 번역

이러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담화 행위가 바로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만드는 틀로서 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sup>2)</sup>, 사람들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동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역동적 개념은 사회운동이론이나 미디어 이론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커닝햄과 브라운닝(Cunningham & Browning 2004, Baker 2007: 156 재인용)은 이러한 프레임 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이념적으로 사회적 운동의 목표와 연관을 지을 수 있게 되며 운동이라는 행위에 잠재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얻게 된다”고 표현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사실을 연구한 임양준은 언론이 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2) 미국의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은 사람들이 사회를 인식하는 틀로서 프레임 개념을 설명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통해서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경험을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 틀을 토대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 즉, 해석으로서의 프레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택, 강조, 요약함으로써 수용자의 이해와 해석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게 되고, “대중은 미디어에 의해 틀(frame) 지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임양준 2013: 255)”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틀 지어진”이라는 표현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동적인 의미의 프레임이다. 언론의 보도는 수용자로 하여금 단순히 해석만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된 현실을 받아들이게, 동조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천안함 사태를 보도할 때 보수적 성향의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가 서로 다르게 사실을 구성한 사실을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태를 북한 소행으로 보고 안보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겨레는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진상조사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관련 사실을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러티브를 구축한 반면, 한겨레는 해당 사건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것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것이다.

번역에 대한 내러티브 이론 역시 프레임링을 “적극적으로 의미부여(signification)하는 과정”, “사건에 대한 해석을 유도하는 예측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동적 행위”로 규정하는 사회운동 이론(Baker 2007: 156)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 특정한 내러티브를 프레임링하는 데에 번역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베이커는 그 예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사건을 든다(Baker, 2007: 157).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표준적 표현은 ‘주권의 양도(The Handover of Sovereignty)’이며, 중국어권에서는 모국으로의 귀환(The Return to the Motherland)’을 사용한다. 둘 중 어떤 표현으로 옮겨줄 것인지 번역사가 하는 선택은 각각 다른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한다. 영국령이었던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현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홍콩인이라면 전자의 선택을 할 것이고, 아편전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을 환영하는 중국인이라면 후자를 선호할 것이다. 번역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홍콩 반환은 국가 대 국가의 주권 이양이라는 내러티브로 구성될 수도 있고, 어머니 중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내러티브로 프레임링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베이커는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선택은 여러 단어 혹은 표현들 중 하나를 고르고 배제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는 내러티브 구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정 사건, 장소, 그룹을 어떻게 이름 붙이고, 대명사, 장소의 부사를 이용해서 개인이나 집단을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공간 내에서 배치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내러티브를 프레임할 수 있다.3) (Baker 2007: 156)

번역하는 사람 개인의 취향으로 혹은 우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수많은 번역 과정의 선택과 결정은 특정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이해관계를 더 강화시키고 부각시키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번역의 힘, 번역사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목직한 주제에 대한 다각도의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2.3 프레임링 장치

프레임링을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 장치로 프레임 모호성(frame ambiguity), 시공간적 프레임링(temporal and spatial framing),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레이블링(labeling), 그리고 참여자 재배치(repositioning of participants)의 5가지를 들 수 있다(Baker 2006: 107-132).

프레임 모호성이란 특정 사건이 어느 하나의 프레임으로 확정되기에는 모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호함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러티브를 프레임링하는 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무력 분쟁은 전쟁, 내전, 게릴라전, 테러전, 저항도 분쟁 등 다양하게 프레임링될 수 있는데, 분쟁이 가지는 이러한 모호성은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와 체첸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에 대해 체첸인들은 국가간 전쟁(inter-state) 혹은 독립 전쟁으로 지칭할 것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내전이나 다른 형식으로 부르게 될 경우 러시아가 체첸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Baker 2006: 107).

시공간적 프레임링은 특정 텍스트를 다른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넣어서 원래의 내러티브와 현재의 내러티브 사이의 연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Baker 2006: 113). 2017년 3월 11일 NYT에는 당시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문제

3) 필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인 후보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해당 외신을 인용 보도한 국내 언론사들이 저마다 앞다투어 제목으로 선정한 것은 “文, 한국,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였다. 미국 유력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자신의 안보관, 대미관을 피력하면서 “미국에 No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보수계에서는 충격과 우려를, 진보계에서는 절제된 환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리고 국민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다. 알고보니 사실 문후보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해당 문구는 문후보가 자서전에서 예전에 언급한 바 있던 내용을 NYT 기자가 임의로 인터뷰 내용 중간에 끼워넣은 것이었다. 기사가 다른 맥락 속에 놓여있던 “미국에 No할 수 있어야”를 인터뷰의 맥락으로 가져오면서 문후보가 가지고 있던 대미관이 더 부각되었고 이로써 “문후보는 기존 정책보다 독립적인 대미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선택적 전유는 앞서 내러티브의 요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생략, 추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원래의 텍스트, 발화 속에 들어있던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반대로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Baker 2006: 114). 텍스트 선정에서 시작하여 번역을 하면서 원래 있던 내용을 없애거나 없던 내용을 덧붙이는 행위, 특정 뉘앙스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레이블링은 사람이나 장소, 그룹, 사건 등을 지칭할 때 특정 어휘나 용어, 문구 등을 사용해서 원하는 특성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서 베이커는 한 회사의 홍보문구를 들었는데, 유전자 변형(GM) 식품들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초대형 식품회사 몬산토사는 자사를 홍보하는 광고 캠페인에 유전자 변형이라는 문구 대신 식품 생명공학(Food biotechnology)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 이유는 유전자 변형이라는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감정적이고 절끄러운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Baker 2006: 123).

참여자 재배치는 특정 사건 안에 위치한 참여자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위치를 재배치함으로써 내러티브 내에서 혹은 더 큰 차원의 내러티브 상에서 역관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시간, 공간, 직시소(deixis), 사투리, 레지스터, 별칭 등 자신과 타인을 규정하는 다양한 표현을 언어적으로 조작하거나 교묘하게 사용함으로써 특정 사건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을 재배치할 수 있고 결과적

으로 내러티브 리프레이밍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Baker 2006: 132).

번역이라는 행위는 원문과는 전혀 다른 지식체계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텍스트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원문의 프레임과 내러티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김기영 2013, 김순미 2013, 박미정 2013, 홍정민 2017, 강경이 2018). 기존의 연구는 언론 보도, 외신 인용 등 독자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의 번역이 중심이 되었고, 그 외에도 관객이라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연예술이나 어린이들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적 파급효과가 큰 학습만화의 번역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본 연구는 특정 대중과의 접촉력이 큰 매체가 아니라 비교적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 번역을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번역에서의 내러티브의 변화가 줄 수 있는 파급효과가 더 넓고 길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 3장에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앙거스 디턴 교수의 저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의 한국어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의 내러티브가 번역문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 어떻게 리프레이밍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 결과가 번역을 충돌과 갈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3. 사례 분석 및 논의

#### 3.1 사례 배경

본 연구의 계기가 된 것은 2015년 10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와 함께 제기된 번역 관련 논란이었다. 역서가 출판된 이후 해당 분야 전문가나 번역 종사자, 연구자 등에 의해 번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도 생소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 제기된 문제는 원문에 대한 변화나 추가 혹은 생략 등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갖대로 한 여타 논란과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현상적으로 보면 무언가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 생겨남으로 인해 촉발된 여타 번역 논쟁과 다를 바 없었지만, 저서 전체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변형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특정 집단의 의도적 개입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앵거스 디턴은 빈곤, 소비, 복지, 건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온 미시경제학자로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에도 폭넓게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어로 번역된 그의 저서는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가 유일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 촉발된 그에 대한 관심은 해당 저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해당 번역서는 그의 경제관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14년 9월 한경 BP에서 출간된 번역서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것은 출간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앵거스 디턴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2015년 10월이 되어서였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 김공회 연구위원은 해당 번역서 내 각 장과 절의 제목이 바뀌거나 심지어 사라진 부분이 있고, 원문에 없던 내용이 삽입되거나 있던 부분이 임의로 삭제된 곳이 많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번역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번역서를 출판한 한경BP는 저서를 읽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편집상의 변화였다고 해명하고 이후 추가 인쇄가 들어갈 때 문제제기가 된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원문의 저자와 출판사인 프린스턴대 출판부에서 한경BP측에 문제가 된 부분을 원문 그대로 다시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번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지 불과 4일 만에 1년 전 출간된 번역서는 전량 회수되었고, 2015년 11월 재번역을 거쳐 재출간되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편집상의 변화로 인해 원문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경BP는 책 전체의 구성과 각 장절의 제목을 변경함으로써, 그리고 저자의 견해가 들어간 중요한 부분들을 번역에서 뺄으로써, 『위대한 탈출』의 전반적인 성격과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 왜곡의 ‘방향’으로 미뤄볼 때, 나는 이것이 한경BP와 그 배후에 있는 한국경제신문과 자유경제원 식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겨레신문 2015.10.22.4)

한경BP가 편집상의 변화라고 일컬었던 수많은 변형들은 사실 한국경제신문의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결과이며, 이로써 앵거스 디턴이 저서에서 피력하고자 했던 경제관이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에 맞게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원문 저자나 프린스턴대 출판부가 위와 같이 제기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량 회수 후 재번역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터,5) 번역상의 변형이 단순한 변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없이 이루어진 변형들을 어떻게 하나의 경향으로 묶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개개의 변형 사례들과 출판사의 의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매번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 내러티브라는 틀이다. 변형된 예들을 개개의 독립적 사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변형으로 인해 구축될 수 있는 큰 이야기의 흐름 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즉, 특정한 이야기, 내러티브를 일관되게 만들어내는 데에 각각의 변형 사례가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면 번역상의 변형에 특정 집단의 의도가 개입되었는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김 의원이 지적했던 사례를 포함, 원문과 해당 번역문 비교 결과 드러난 여타 변형의 예들을 취합하고, 그러한 변형을 가능하게 한 프레임 장치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장치를 활용해서 번역문에서 어떤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혹은 원문과 비교해서 내러티브가 어떻게 리프레이밍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김공회 의원 블로그에 실렸던 본문 전체가 한겨레신문에 다시 게재되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3967.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3967.html)
- 5) 한국경제신문측에서는 재번역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번역상의 변형이 단순히 독서를 돕기 위한 편집에 불과했다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통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책의 부제와 일부 제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고, 이것이 ‘역지 시뮬터’가 됐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그렇다고 디턴 경제학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 . . (중략) 디턴의 메시지는 곧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새로운 편집본에서 재확인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일독을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2015.11.02.

### 3.2 사례 분석

실제 분석 결과, 원문이 번역문으로 옮겨지면서 저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형이 가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형은 프레이밍 장치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이 가능하다.

#### 3.2.1 리프레이밍에 사용된 장치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 분석 결과, II.장에서 제시된 5가지 프레이밍 장치 중 시공간적 프레이밍, 선택적 전유, 레이블링, 그리고 참여자 재배치 등이 매우 반복적이면서도 상호 중첩되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도적인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원문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함으로써 특정 내러티브를 부각시키는 데에 활용되는 선택적 전유이다. 원문에 대한 삭제는 저서의 전체에서 개별 문장, 문단, 절, 심지어 하나의 장 차원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는데, 문제 제기 이후 재번역되어 출간된 2차 번역본이 1차에 비해 60페이지가 늘어난 것만 보아도 1차 번역본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한 삭제와 누락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sup>6)</sup>. 원문에는 서문(preface)과 도입부(introduction)에 이어 7개의 장이 3개의 부로 나뉘어 배치되었고, 후기(postscript)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저자가 해당 저서의 제목과 집필 계기를 자신의 아버지, 자신,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궤적과 더불어 살펴본 서문은 5개의 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되었다. 살아남은 5개의 문장은 원문에서는 서문의 후반부에 두 부분으로 떨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임의로 합쳐져서 하나의 문단으로 재구성되었고,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프롤로그 맨 마지막에 첨가되었다.

원문의 도입부는 해당 저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지, 영화 ‘대탈주’에서 비롯된 저서 제목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경제성장과 불평등, 소득과 건강, 발전의 의미,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 행복과 소득 등 주요 개념에 대해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도입부는 1차 번역본에서

6) 1, 2차 번역본은 같은 포맷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페이지 단순 비교로도 분량에 대한 대조가 가능하다. 1차는 375쪽, 2차는 435쪽이었다.

단 10페이지로 축소되어 있고, 불평등의 의미, 소득과 건강, 발전의 의미 등을 독자들이 공유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되었다.

원문 도입부의 맨 첫 문단은 번역문 프롤로그에서 영화 내용에 대한 소개 이후로 밀려났다. 원문 서문의 일부는 프롤로그의 맨 마지막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특정 사건 내 여러 참여자를 시, 공간적으로 다시 배치해서 내러티브에 변화를 주는 프레이밍 장치인 참여자 재배치는 번역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원문의 서문과 도입부를 합쳐 만들어놓은 프롤로그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름 짓기 즉, 특정 어휘나 용어, 문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특성을 더 부각되어 보이게 하는 레이블링은 특히 제목과 부제목, 부, 장, 절 소제목의 변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원문의 제목 *The Great Escape*은 저자의 언급대로 1963년 스티브 맥퀸 주연의 영화 제목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탈주’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The Great Escape*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대탈주, 대탈출, 위대한 탈출 모두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영화 제목이 언급될 때 ‘대탈주’라고 지칭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경우 ‘위대한 탈출’, 혹은 ‘대탈출’로 옮겨주었다.

부제목이나 부, 장, 절 소제목의 경우 원문의 일부만 남겨두거나 부분적으로 재구성한 경우도 있지만<sup>7)</sup>, 유전자 변형을 식품 생명공학으로 지칭하는 경우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지은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원문의 부제목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의 경우 원문의 *inequality*만 살려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로 변형되었고, 1부 제목인 *Life and Death*는 ‘삶,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대탈출’로, 2부 제목 *Money*는 ‘가난으로부터의 대탈출’로 바뀌었다. 한편, 3장의 경우처럼 *Escaping Death in the Tropics*라는 제목이 ‘무엇이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만드나’로 원문과 관계없이 전혀 다르게 레이블링된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7) 원문에 없던 부분을 첨가하거나 있던 내용을 삭제해서 특정 측면을 부각시킨다는 관점에서는 선택적 전유의 예로 볼 수도 있다. 제목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파라텍스트(지영래 외, 2010)로서 해당 저서 전체, 장, 절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을 어떻게 이름 짓는가에 따라 대상의 특정 측면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레이블링으로 구분한다.

〈표 1〉 7장 제목 변형의 예

원문	직역	번역문
7. How to help those left behind	7. 남겨진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7.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Material aid and global poverty	물질적 원조와 세계 빈곤	물질적 원조가 빈곤을 없애나?
Facts about aid	원조에 대한 사실	원조의 딜레마
How effective is aid?	원조는 얼마나 효과적인가?	원조는 얼마나 효과적일까?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projects	개발 프로젝트의 효과	국가 역량을 위태롭게 한다
Aid and politics	원조와 정치	정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
Is health aid different?	의료 원조는 다른가?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다른가?
What should we do?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표 1〉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원조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7장 내 각 절의 소제목이 레이블링된 예를 보여준다. 디턴은 7장에서 원조가 반드시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며, 경제개발에 이용되지 않고 해당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전용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원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원문의 소제목들은 ‘원조에 대한 사실’, ‘개발 프로젝트의 효과’, ‘원조와 정치’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교적 객관화되어 있다. 반면 번역문에서 이 제목들은 ‘원조의 딜레마’, ‘국가 역량을 위태롭게 한다’, ‘정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 등으로 레이블링되어 원조와 개발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부각시켰다.

어떤 텍스트를 전혀 다른 시, 공간적 맥락에 집어넣어서 특정 내러티브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시공간적 프레임은 선택적 전유와 참여자 재배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앞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원문의 서문과 도입부는 선택적 전유와 참여자 재배치에 의해서 프롤로그라는 부분으로 재구성되었는데, 바로 그 프롤로그 이후에 원문에는 없는 독자적 텍스트가 삽입된 것이다. 해당 텍스트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글로 『피케티 vs. 디턴, 불평등을 논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피케티와 디턴의 견해가 저자의 제목처럼 실제로 서로에 반하는 대척점에 서있는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실제적 진실, 그러니까 피케티와 디턴의 접근이 상반되는 것인가 아닌가하는 논란과는 별개로 해당 텍스트는 일

반적으로 저서 앞에 첨가되는 여타 글들과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상당히 다르다.

텍스트의 내용, 구성을 보면 디턴의 저서를 소개하기 보다는 피케티 연구에 반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 읽힌다. 일반적으로 번역서에 원문에 없는 서문이 첨가된다면 그것은 원문 저자나 저서에 대한 소개 혹은 자세한 설명을 담은 전문가, 편집진, 또는 번역자의 글이다. 그러나 현진권 원장의 텍스트는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라는 저서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극소수 부유층에 편중된 자본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한 피케티 연구에 대한 비판글에 가깝다. 피케티에 대한 언급은 2번째 문단을 시작으로 글의 전반부를 거의 장식하다시피 하고, 피케티에 반해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고 부유층에 대한 억압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디턴과 그의 저서에 대한 내용은 6번째 문단이 되어서야 등장하며, 시장경제체제 옹호라는 전체 글의 취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인용된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간략하고 추상적이다. 저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견해를 담은 텍스트가 책을 시작하는 서두에 포함됨으로써 원문 저자의 의도와는 별개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졌다. 시공간적 프레임이라는 장치가 디턴과 피케티를 대비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다음 2.2절에서는 선택적 전유, 참여자 재배치, 레이블링, 시공간적 프레임이라는 장치를 토대로 원문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3.2.2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3.2.2.1 존재론적 내러티브의 삭제

소머즈와 김슨은 내러티브를 존재론적 내러티브와 공적 내러티브, 개념적 내러티브와 메타 내러티브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존재론적 내러티브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 자신의 개인적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개인적 스토리다. 따라서, 상호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가진다. 반면, 공적 내러티브는 개인보다는 종교, 기관, 단체, 언론 등 더 확장된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다. 개념적 내러티브는 사회적 연구자로서 우리가 만들어 내는 개념, 설명에 대한 이야기이며, 메타 내러티브는 진보, 데카당스, 산업화 등과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좀 더 큰 차원의 내러티브를 말한다(Somers &



Gibson 1994, Baker 2005: 5-7 재인용).

디턴은 서문에서 본인의 책을 소개하면서 영화 ‘대탈주’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신의 개인사를 길게 이어갔다.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농사일을 그만두고 서크로프트 탄광촌으로 이사 온 증조부모, 탄광촌에서 살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아버지가 에든버러에서 토목 기사 자격증을 따고 기술자가 되어 탄광촌에서 아들인 본인을 ‘탈출’시킨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탈출에 힘입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디턴 자신이 교수가 되고 본인의 자녀들을 더 좋은 여건 하에서 교육시킬 수 있었던 이야기까지 개인적인 경험이 약 4페이지에 걸쳐 언급된다. 디턴이 가난과 질병에서 탈출했던 자신의 부모 이야기를 길게 이어간 것은 그러한 탈출이 당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며, 탈출이라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에서 시달리다가 죽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오늘날 미국의 현실과 연관 지어 기술하면서 운 좋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일부이며,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결국 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곧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연결시킨다.

이와 같이 디턴이 건강과 부, 불평등에 대한 공적 내러티브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개인적 내러티브를 소개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 소회를 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어질 공적 내러티브와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난과 질병에서 탈출해서 발전을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한 발전과 성장의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불평등이라는 상황을 야기하고, 이러한 불평등은 때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점을 본인과 본인의 아버지, 조부모의 삶과 연관지어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디턴이 자신의 저서 출판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건네는 감사의 인사에 이르기까지 존재론적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서문의 모든 부분이 번역문에는 삭제되었다.

### 3.2.2.2 불평등은 좋은 것이다?

디턴은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평균수명도 증가해서 과거 어

느 때보다 인간의 삶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수백만 명이 끔찍한 빈곤과 질병 속에서 살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가 너무 불평등하다는 말로 도입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전에 영향을 주는 불평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방주사를 맞는 등의 보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인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불평등은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게 하려고 공공 보건 서비스를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처럼 불평등은 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디턴은 도입부 전반부에서 본인의 저서가 세상이 얼마나 나아졌고, 발전이 어떻게 왜 가능했는지, 그리고 불평등과 발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디턴이 세계가 너무 불평등하다는 말로 시작한 도입부의 첫 문단은 다음과 같다.

Life is better now than at almost any time in history. More people are richer and fewer people live in dire poverty. Lives are longer and parents no longer routinely watch a quarter of their children die. Yet millions still experience the horrors of destitution and of premature death. The world is hugely unequal. (Deaton 2013: 1)

번역서에서 이 문단은 프롤로그 중반부로 밀려났고, 해당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디턴이 사용한 비유적 표현 즉, 부모들은 더 이상 자식들 네 명 중 한 명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은 삭제되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에 대해 디턴은 이미 서문에서 지적한 바 있다. 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가난으로부터의 탈출만큼이나 병마로부터의 탈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디턴은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부 처음에서 다시 자녀의 죽음을 언급한 것인데, 부모와 자식의 죽음을 다룬 서문과 해당 도입부 부분 모두 번역문에서는 삭제되었다.

여전히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사회로 강렬하게 시작한 도입부 첫 문단은

참여자 재배치라는 장치를 통해 뒤로 밀려났고, 표현력의 강화를 위해 저자가 사용한 비유적 표현 역시 삭제되어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언급은 원문에 비해 강도가 약화되었다. 그리고 첫 문단에 이어서 불평등과 발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는 책의 취지를 설명하는 두 문단 역시 프롤로그라고 명명된 번역문 상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바로 다음 문단에서 영화 ‘대탈주’ 대한 설명을 한 이후 디턴은 자신이 부제에 사용한 ‘불평등의 기원(the origins of inequality)’이라는 표현을 영화 내용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이 부제목은 영화 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대잔류(The great left behind)’라는 영화 제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탈출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즉, 수용소를 탈출한 사람은 일부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남아있는 영화의 내용처럼 실생활에서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표현으로 부제목에 삽입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문단에 걸쳐서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역시 번역서에서는 모조리 삭제되어 보이지 않는다.

원문의 도입부는 총 8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표는 원문의 도입부가 번역서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어있는지를 보여준다. 원문의 소제목을 보면 불평등이 3번이나 등장하고, 불평등과 성장, 발전의 상관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 모든 소제목들 중 행복과 소득이라는 마지막 제목만이 살아남았고, 다른 소제목에 속한 내용들 역시 극히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 삭제되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디턴이 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 발전과 불평등에 대해 언급한 서문과 도입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서문이나 도입부에서 뿐 아니라 디턴은 불평등에 관해 말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 즉,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항상 같이 언급한다. 미국의 예를 통해 물질적 웰빙에 대해 이야기하는 5장에서도 경제성장을 언급하기 전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Inequality can sometimes spread growth, if it shows for others to benefit from the new opportunities. But it can also undercut material improvement and even threaten to extinguish it altogether. Inequality can inspire or incentivize those who are left behind to catch up, generating improvements for them and for others. Or inequality can become so severe, and the gains so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that economic growth is choked off and the workings of the economy are compromised. (Deaton 2013: 168)

위 부분에서도 디턴은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 특성을 같이 언급하면서 성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그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디턴이 이렇게 불평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5장의 이 부분 역시 번역문에는 빠져있다.

서문과 도입부, 본문에서 디턴이 불평등의 양면적 특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 불평등과 발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번역문에서 대부분 삭제되었지만, 부제목에서는 매우 강렬하게 살아났다.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라는 원문의 부제가 번역문에서는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

〈표 2〉 도입부 소제목 변형의 예

원문	직역	번역문
Introduction - What this book is about	도입부 -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프롤로그 - 세계는 너무 불평등하다
The Great Escape: The movie	영화 <대탈주>	행복과 소득
Economic Grow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기원	
Not Just Income, but Health Too	소득뿐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다	
How Does Progress Come About?	발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Why Does Inequality Matter?	왜 불평등이 중요한가	
A Road Map	로드맵	
Measuring Progress, Measuring Inequality	발전과 불평등 측정	
National Happiness and National Income	국민 행복과 소득	

시키나>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서문과 도입부, 5장을 비롯해서 저서 전반에서 디턴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 불평등과 발전의 관계는 부제목의 변형을 계기로 매우 단순화되었다. 불평등은 성장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즉,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 불평등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된 것이다. 디턴이 불평등과 발전의 관계에 대해,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 특성에 대해 언급한 서문과 도입부, 본문이 번역문에서 대부분 삭제된 탓에 독자들은 불평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서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부제목은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시킨다’ 라고 명시적으로 레이블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의 판단이 ‘불평등은 성장을 촉발시키는 좋은 것’으로 유도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당연해 보인다.

### 3.2.2.3 탈출은 위대한 것이다?

*The Great Escape* 라는 영화는 1963년 한국에서 ‘대탈주’라는 제목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디턴이 말한 대로 *The Great Escape*이라는 저서의 제목은 동명의 영화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영어권 화자들이 기존에 친숙하게 알고 있던 영화 제목과 내용을 이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저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서문을 시작한다.

The Great Escape is a movie about men escaping from a prisoner-of-war camp in World War II. The Great Escape of this book is the story of mankind's escaping from deprivation and early death, of how people have managed to make their lives better, and led the way for others to follow. (Deaton 2013: ix)

서문의 가장 처음을 장식하는 위 문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디턴은 영화와 자신의 저서를 같은 맥락에 대입시켜 영화의 내용과 책의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다. *The Great Escape*라는 동일한 제목을 앞 뒤 문장 맨 처음 주어부에 배치해서 제목은 동일하지만 앞에서는 영화를, 뒤에서는 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종의 반복을 통한 대비 효과를 노린 것이다. 영화 대탈주와 책 대탈주를 연결

지으면서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다. 저자가 원문을 읽은 영어권 화자들이 영화와 책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를 바라면서 제목을 지었고, 별도로 위와 같은 언급까지 한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어 저서 제목도 한국 독자들이 익숙한 ‘대탈주’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책 제목의 레이블링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은 선택적 전유라는 장치를 통해 더 짙어진다. 왜냐하면 영화 제목과 책 제목을 연결시켜 책의 취지를 설명한 위 서문이 번역문에서는 통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구가 ‘탈출’ 앞에 붙어서 만들어진 ‘위대한 탈출’이라는 제목은 영화 제목과 관련된 서문의 삭제와 결합되어 ‘대탈주’라는 제목의 선택 여지를 매우 축소시켜 버렸다. 저자가 저서의 제목에 부여한 의미, 영화 제목과 연결시킨 맥락은 위 서문의 삭제, 즉 선택적 전유라는 프레이밍 장치로 인해 사라져버렸고, 그와 동시에 번역서의 제목은 ‘대탈주’가 아닌 ‘위대한 탈출’로 레이블링된 것이다.

탈출은 위대한 것이며 우월한 것이라는 내러티브는 장과 부, 절의 소제목 변형을 통해서도 강화되었다.

〈표 3〉 장, 부, 절의 소제목 변형의 예

원문	직역	번역문
Life and Death	삶과 죽음	삶,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대탈출 (2부)
Money	돈	가난으로부터의 대탈출 (3부)
Changing Bodies	신체의 변화	영양실조로부터 벗어난 대탈출 (4장 4절)
How to help those left behind	남겨진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7장)

원문의 2부, 3부의 제목 그 어디에도 탈출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번역문에서는 제목에 대탈출이라는 표현을 첨가해서 탈출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현대 세계에서의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 4장의 경우 4절 신체의 변화라는 제목이 영양실조로부터 벗어난 대탈출로 바뀌어 있다. 해당 절에서는 영양실조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평균 신장이 높지 않다는 점을 다루면서 영양실조로부터의 대탈출(*the Great Escape from malnutrition*)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지만 절의 주된

내용은 부유해지는 현상과 키가 커지는 현상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키가 커졌지만 아직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그 뒤에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신체까지 불평등해지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디턴은 저서 전체에서 탈출 자체의 의미만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탈출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 어떤 이들은 탈출했지만, 다른 이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불평등한 상황,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4장 4절의 소제목, 7장의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번역문에서는 한결같이 탈출 자체의 의미가 원문에 비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3.2.2.4 원조는 부정적인 것이다?

레이블링의 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남겨진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었던 7장의 소제목들은 원조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부각시켰다. ‘원조에 대한 사실’은 ‘원조의 딜레마’로 바뀌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 특성을 더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 개발 프로젝트의 효과’를 논하는 4절에서 디턴은 개발, 원조 프로젝트가 성공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적일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프로젝트의 규모를 키우게 되면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에서는 보였던 장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업무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원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료들의 업무를 과중시켜 오히려 국가 역량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즉, 해당 절에서 디턴은 원조, 개발 프로젝트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효과들을 다양한 경우의 예를 들며 설명하면서 원조가 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원래 ‘개발 프로젝트의 효과’로 명명되었던 제목은 번역문에서 ‘국가 역량을 위태롭게 한다’로 바뀌어 버렸고, 이로 인해 개발 프로젝트가 마치 모든 국가에서 국가 역량을 위협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절에서 전체의 5분의 1 분량 즉,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언급하는 부분, 사업 평가의 유효

성을 언급하는 부분은 번역문에서 삭제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원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룬 5절 ‘원조와 정치’ 역시 번역문에서는 ‘정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로 레이블링되어 원문에 비해 부정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 3.2.2.5 피케티와 디턴은 서로 상반된다?

앞서 3.2.1에서 언급한 대로 번역서에는 원문에는 없던 현진권 자유경제연구원장의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다. 다른 시공간적 맥락에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특정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시공간적 프레임의 예였다. 해당 텍스트의 제목은 『피케티 vs. 디턴, 불평등을 논하다』로 피케티와 디턴이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내러티브로 프레임된 텍스트임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텍스트 전체의 절반 이상이 피케티의 경제관 즉, 부유층에 자본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그것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디턴이 가지고 있는 성장과 불평등에 대한 관점이 피케티의 견해와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두 학자 모두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 원인으로 성장을 저하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상반된 견해가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디턴과 피케티가 서로 대척점에 서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본문을 읽고 나서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디턴은 미국의 경제성장을 다루는 5장에서 상위계층에 의한 소득집중 문제를 언급하면서 피케티를 인용한다. 2003년도 피케티와 사에스의 연구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에 변혁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그들이 제시한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세 자료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그리고 정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 디턴 vs 피케티 ... ‘불평등’을 보는 눈 대척점 아닌 보완적 관계. (한국일보, 2015.10.13.)

다. 피케티가 제시한 상위 소득 점유율 자료를 바탕으로 디턴은 지난 30년 동안 소득 하위 90퍼센트 사람들의 소득은 1.9퍼센트 증가한 반면 상위 1퍼센트 사람들의 소득은 2.35배, 상위 0.01퍼센트의 소득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인류가 상당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디턴은 바로 이러한 소득 불균형에서 찾았다.

경제학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 피케티와 디턴을 대립 선상에 놓는 해당 내러티브가 맞는지 그른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두 학자의 다른 여러 연구들을 좀 더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의 입장에서 디턴이 저서에서 피케티를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면 두 학자의 의견이 완벽하게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서로 상반되는 의견은 아니라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텍스트가 번역서에 삽입된 시공간적 프레임에 의해서 번역문의 내러티브가 원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피케티와 디턴을 대립시키는 방향으로 리프레이밍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4. 논의

앵거스 디턴의 저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와 그것의 1차 번역문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를 비교해본 결과, 원문의 내러티브가 번역문에서 다르게 리프레이밍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러티브 리프레이밍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장치는 선택적 전유였으며, 그 외에도 레이블링, 시공간적 프레임, 참여자 재배치 등의 방법이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우선 존재론적 내러티브가 삭제되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디턴은 교육의 혜택을 받아 미국에서 교수로 자리를 잡고, 자녀들이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 이야기를 저서의 공적 내러티브 즉, 건강과 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증조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아버지가 가난과 질병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여러 노력은 다행히 성공적이었고, 그러한 탈출을 바탕으로 본인과 자녀들이 성장과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본

인의 다른 친척 중에는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디턴의 개인적 내러티브이다. 이러한 그의 개인적 내러티브는 그가 저서 전반에서 다루고자 했던 공적 내러티브와 맞닿아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가난과 질병에서 탈출해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불평등하며,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발전과 불평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디턴의 개인적 내러티브는 모두 삭제되어 있고, 그로 인해 경제학자로서 디턴이 견지하고 있는 경제관 즉, 공적 내러티브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내러티브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불평등과 발전, 성장의 관계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서문, 도입부, 본문의 상당부분이 선택적 전유에 의해 삭제되면서 디턴이 불평등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다.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진 서문, 도입부, 본문의 상당 부분이 번역문에는 삭제되어 있다. 반면, 책의 부제목은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로 레이블링 되면서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저자 본인이 영화 ‘대탈주’에서 따왔다고 밝힌 저서의 제목 *The great escape*은 한국어에서 ‘위대한 탈출’로 바뀌면서 원문에 비해 번역문에서 탈출의 의미가 더 긍정적이고 우월적인 것으로 레이블링되었다. 그와 동시에 저자가 책 제목을 영화에서 가져왔노라고 밝히는 서문 역시 삭제되었다. 또, 각 장과 절의 소제목에서 원문에는 없는 ‘탈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탈출 자체의 의미가 원문에 비해 강조되었다.

남겨진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다룬 7장의 제목과 절의 소제목들은 한결같이 원조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7장의 제목은 ‘남겨진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이지만, 번역문에서는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로 바뀌었고, ‘원조에 대한 사실’은 ‘원조의 딜레마’로, ‘개발 프로젝트의 효과’는 ‘국가 역량을 위태롭게 한다’로 레이블링되었다. 원조와 정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다루는 절의 제목 ‘원조와 정치’는 ‘정치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로 바뀌어서 원조가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원문에 비해 더 강조되어 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를 디턴과 대비시키는 내러티브는 다른 시공간적 맥락에 놓여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서 특정 내러티브를 강화시키는 시공간적 프레임에 의해 구축되고 강화되었다. 미국의 경제성장을 다루는 5장에서 디턴은 피케티의 소득세 관련 자료를 높이 평가하고, 전 세계가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이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에서 찾았다. 저서의 내용으로 보아 디턴의 견해를 피케티와 상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케티와 디턴을 대립시키는 내러티브가 구축된 것은 번역문 앞에 첨가된 현진권 자유경제연구원장 텍스트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 내용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양상

원문	번역문
불평등은 매우 중요하다. 불평등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다	불평등은 좋은 것이다
탈출도 중요하지만 탈출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탈출은 위대한 것이다
원조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원조는 부정적인 것이다
피케티의 소득세자료는 소득 집중으로 인해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디턴의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피케티는 디턴과 상반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내러티브 변화는 독자들의 판단과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를 늘리거나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등의 조치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탈출의 경우 그것 자체가 위대한 것이고, 해야 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일단 탈출 자체에 주어지게 된다.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빠져나오게 할 것인지 보다 우선 나의 탈출에 방점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어서 가난과 질병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한 나라를 돕는 것은 그 나라의 역량을 위태롭게 하고 정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굳이 못

사는 나라를 돕는 원조는 필요 없다는 판단 역시 가능하다.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부 집중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주장한 피케티는 디턴과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턴의 노벨상 수상으로 피케티가 옳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음은 앵거스 디턴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를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들의 제목이다.

- 노벨경제학상 앵거스 디턴 “불평등은 경제성장 동력”  
 (조선비즈, 2015.10.12.)
- “불평등이 성장의 발판” - 위대한 탈출은 피케티 허구 드러낸 역작  
 (한국경제, 2015.10.13.)
- 노벨 경제학상 앵거스 디턴은 누구?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동력 ‘위대한 탈출’의 저자, 미시경제학의 대가 ‘21세기 자본’의 피케티 교수와 정면 충돌  
 (글로벌이코노믹, 2015.10.13.)
- “불평등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 노벨 경제학상 저서 읽어보니  
 (머니투데이, 2015.10.12.)
- “인류를 궁핍서 탈출시킨 건 성장의 힘” - 좋은 불평등론에 노벨상  
 (한국경제, 2015.10.13.)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선진국의 원조가 후진국 망쳐  
 (이코노미스트, 2015.10.19.)

실제로 많은 신문들이 불평등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며, 성장의 발판이 되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디턴이 피케티의 허구를 드러냈으며, 피케티와 정면충돌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선진국의 원조가 후진국을 망치기까지 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번역문에서 강화된 내러티브가 신문 보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한 일간지에서 디턴의 노벨상 수상 이후 실은 사실의 일부다.

디턴의 이론은 ‘불평등이 경제 성장(成長)의 동력’이라는 명제로 요약된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토마 피케티 파키경제대 교수의 ‘세습된 부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분석이다. [중략]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된 저서 ‘위대한 탈출’에선 “성장을

통해 인류가 궁핍과 죽음으로부터 비로소 대탈출을 이뤄냈다”고도 평가했다. 결국 그는 성장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불평등의 힘, 이 본질을 이해해야 현실을 개선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중략] ‘성장의 힘을 믿으라’는 디턴의 역설(力說)은 성장 우선이나, 분배 우선이나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한국에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해준다. 빈곤의 해법은 고민하되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복지도, 일자리도 있다는 진리를 새삼 일깨우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2015.10.13.)

번역문에서 강화된 내러티브가 위 사실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불평등은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것이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분배하기 보다는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디턴의 이론은 부의 집중 문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피케티와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디턴의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내러티브가 변형되지 않았다면 기사 제목과 사실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일관된 내러티브 구축이 가능했을까. 번역문 내러티브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디턴에 대한 한국 언론의 시각에 반영되어서 언론을 통해 디턴을 접하게 되는 한국어권 화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관된 내러티브의 변화로 과연 누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해볼 수 없다. 분석과정에서 밝혀진 대로 디턴의 저서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의 1차 한국어 번역문은 60페이지 가량의 원문이 잘려나가고 앞뒤 순서가 뒤바뀌고, 없던 텍스트가 끼워 넣어진 채 한국 독자들을 만났다. 2015년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 김공희 연구위원이 지적한 조직적 왜곡이라는 부분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동일하다. 실수 혹은 편집상의 변화라고 부르기에는 변형의 정도와 규모가 엄청나고 변화된 내러티브가 특정 방향으로 일관되게 유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고, 해결해야 문제가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불평등에 접근하는 보수적 경제관과 일관되게 매우 닮았다. 거기에 진보적 경제학자인 피케티를 정면 비판하는 자유경제원장의 텍스트까지 삽입되면서 번역문 전체가 보수적 경제관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의심이다.

번역이 그것을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통 행위라는 사실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80년대 이후 번역이 이루어

어지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번역을 둘러싼 여러 참여자들, 번역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번역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어져오고 있다. 예벤 조하르(Even Zohar 2000)의 다체계이론, 투리(Toury 1995)의 번역 규범, 르페브르(Lefevre 1992)의 다시쓰기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번역 연구에서는 조작적 행위로서의 번역, 순수하지 않은 다시쓰기로서의 번역의 특성에 이미 오래 전부터 주목해왔다. 학문으로서 번역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에 나타난 내러티브 변화는 번역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전혀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현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작적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난 ‘다시 쓰인’ 번역에 대해 번역이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론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번역을 발주하고 행위에 참여한 여러 주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어떻게 변하든, 그것이 어떠한 파급효과를 낳든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알바레즈와 비달은 번역이 가지고 있는 힘을 경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어를 조작하는 데에 따른 결과와 번역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의 남용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Alvarez & Vidal 1990:17)”고 밝힌 바 있다. 어떠한 변형이 있든 그것을 현상 자체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에 반영된 내러티브 변화는 수많은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고 독자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한 전문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결국 회수 후 재번역이라는 혁신적인 결과를 낳았다. 출간된 지 1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지만 늦게나마 번역 소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이 거부된 것이다.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 이론은 실제적 학문이다. 힘의 역관계 속에 놓인 번역이라는 활동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그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를 경계하는 것, 번역의 수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번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몫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번역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관철하는

데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행위이며, 그 힘의 남용을 소비자들의 힘으로 차단시킨 사례를 통해 번역학 연구자들의 향후 역할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5. 결론

번역은 외양상으로는 단순히 하나의 그릇에 있던 내용물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번역을 하는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작업이다. 우연으로 보이는 개 개인의 선택 속에도 번역사 자신이 구성원으로 속해서 살아온 집단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번역을 둘러싸고 조성된 사회, 정치적 환경은 결과로서 번역물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영향을 준다. 본 논문은 특정 이익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을 반영하고 관찰시키는 통로로서 번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고찰해보고자 했다.

분석 대상이 된 것은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원문과 그것의 1차 번역서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이다. 해당 번역서에는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출판사나 번역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독자적 텍스트 전체가 임의로 삽입되어 있었고, 원문의 6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삭제되어 보이지 않았다. 또, 기존의 텍스트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 다시 배치되거나 제목이 원문과는 전혀 다른 제목으로 레이블링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변형은 해당 저서의 방향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출판사의 의도 때문이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제 제기 4일만에 원문 저자와 출판사측의 요구로 회수되어 이후 재출간되었다.

내러티브 프레이밍의 관점에서 분석해본 결과, 선택적 전유, 참여자 재배치, 시공간적 리프레이밍, 레이블링이라는 프레이밍 장치를 이용해서 원문의 내러티브가 번역문에서 변화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유형의 측면에서 보면 저자 개인의 역사를 책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건강, 부, 불평등, 성장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공적 내러티브를 완성하고자 도입된 존재론적 내러티브가 번역문에서는 삭제되었다. 내러티브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선

택적 전유와 레이블링을 통해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었고 이로써 ‘불평등은 좋은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가 구축되었다. ‘대탈주’일 수 있었던 저서 제목이 『위대한 탈출』로 레이블링되고, 부, 장, 절의 소재목에 이르기까지 원문에 없던 ‘탈출’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첨가되면서 탈출은 위대한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강조되었다. 원조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원조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접근한 원문은 국가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정치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리프레이밍되었다. 일부 고소득층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비판한 피케티는 디턴과 대척점에 서있는 학자로서 비판되었고, 피케티 대 디턴이라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졌다.

리프레이밍된 내러티브를 분석해본 결과 성장을 중시하고 불평등과 분배의 의미를 축소하는 보수적 경제시각과 맥락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판단은 당시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디턴과 관련된 다양한 언론 기사 제목과 논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보수적 경제관을 견지하고 있는 출판사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디턴이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많은 독자들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면 해당 번역서상의 내러티브 변화는 독자들의 판단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아직까지 건재할지도 모른다. 번역 소비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이 거부된 예로서 본 사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곧 번역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자문으로 연결된다. 조작적 행위, 다시쓰기로서의 번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오래 전부터 주목해왔던 연구자의 입장에서 특정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번역의 조작적 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해당 번역문 내러티브의 리프레이밍 과정에서 그것을 번역한 번역사들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 한정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사는 어떤 위치를 점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번역은 특정 내러티브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구축된 내러티브의 허구를 밝힐 수도, 그를 통해 독자들의 판단과 행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행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프레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번역은 이야기를 단순히



특정 방향으로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동조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번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로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경이 (2018) 「학습만화 번역에서의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현상 고찰 - 사회분야 학습만화의 한중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3): 7-41.
- 김기영 (2013) 「내러티브를 통해 살펴본 국제뉴스의 현지화 현상 - 한미FTA 관련 뉴스 사례분석」, 『번역학연구』 14(2): 39-63.
- 김순미 (2013)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CNN의 ‘아랍의 봄’ 보도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2): 65-102.
- 박미정 (2013) 「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재생산되는 뉴스담론과 번역에 관한 일고찰」,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68-75.
- 이현경, 최윤희 ( 옮김 ) (2014)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 서울: 한국경제신문. (Angus Deaton (2013)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New Jersey: Princeton UP.)
- 임양준 (2013) 「한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 분석 -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사설과 칼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2: 251-285.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247-276.
-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 홍정민 (2017) 뮤지컬 가사 번역에서 배우의 영향에 대한 고찰 - 『지킬 앤 하이드(Jekyll & Hyde)』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255-291.
- Alvarez, Román and M. Carmen-África Vidal (1990)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Baker, Mona (2005) ‘Narratives in and of translation’, *SKASE Journal of*

-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1(1): 4-13.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2007)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Social semiotics*, 17(2): 151-169.
- Bassnet, Susan and André Lefevre (1990)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 New York: Pinter.
- Deaton, Angus (2013)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New Jersey: Princeton UP.
- Even-Zohar, Itamar (2000)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2-197.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Boston: Northeastern UP.
- Lefevre, Andr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enuti, Lawrence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인터넷 자료>

- 김공희 (2015.10.22.) 「한경BP는 어떻게 디턴의 ‘위대한 탈출’을 왜곡했나」, 『한겨레신문』, 2019년 2월 1일 검색.
- 김대호 (2015.10.13) 「노벨 경제학상 앵거스 디턴은 누구?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동력 ‘위대한 탈출’의 저자, 미시경제학의 대가 ‘21세기 자본’의 피케티 교수와 정면 충돌」, 『글로벌이코노믹』, 2019년 2월 1일 검색.
- 김유미 (2015.10.13.) 「불평등이 성장의 발판 - 위대한 탈출은 피케티 허구 드러낸 역작」, 『한국경제』, 2019년 2월 1일 검색.
- 김유미 (2015.10.13.) 「인류를 궁핍서 탈출시킨 건 성장의 힘 - 좋은 불평등론

- 에 노벨상, 『한국경제신문』, 2019년 2월 1일 검색.
- 문화일보 사설 (2015.10.13.) ‘성장(成長)의 힘 믿으라’는 노벨경제학상 앵거스 디턴 교수, 2019년 2월 1일 검색.
- 박상주 (2015.10.19)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선진국의 원조가 후진국 망쳐」, 『이코노미스트』, 2019년 2월 1일 검색.
- 연선옥, 이윤정 (2015.10.12) 「노벨경제학상 앵거스 디턴 “불평등은 경제성장 동력”」, 『조선비즈』, 2019년 2월 1일 검색.
- 유영호 (2015.10.12.) “불평등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 노벨 경제학상 저서 읽어보니, 『머니투데이』, 2019년 2월 1일 검색.
- 정규재 (2015.11.02.) 「누가 디턴의 ‘위대한 탈출’을 왜곡하나」, 『한국경제신문』, 2019년 2월 1일 검색.
- 한경BP (2015.10.20.)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번역 왜곡 논란에 대한 출판사의 입장 전문」, 2019년 2월 1일 검색.

[Abstract]

**Narrative Framing and Translation: Analysis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Lee, Hye-seung  
(University of Suwon)

Translation is often understood as a frag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ource and the target text, where focuses are only given to what has been added or what is missing. However, the translation itself is not an isolated act, and it should be considered in a wide range of context, where various interest groups particip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ranslation as a dynamic act that can clearly show the clash and conflict of values and views, followed by different interest groups. Angus Deaton's *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and its Korean translation are analyzed on the basis of narrative fram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arrative of the original text was changed in the translation, and it induced the reaction of the readers in a certain direction, which is preferred by certain interest group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ranslation is a dynamic act that can influence readers' judgments and actions through narrative framing. However, more discussions should be followed to what extent those changes of narratives in translation can be accepted.

▶ Keywords: frame, narrative, narrative framing, translation, interest groups

▶ 주제어: 프레임, 내러티브, 내러티브 프레임, 번역, 이익집단

이해승

수원대학교 외국어문학부 조교수

lena1997@hanmail.net

번역과 문화, 번역과 이데올로기, 번역의 역할

논문투고일: 2019년 2월 8일

심사완료일: 2019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19일